

CAI를 활용한 부모훈련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언어행동과 아동의 표현언어능력에 미치는 효과

김영란^{a,b} · 김영태^{a,§}

^a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b어린이언어발달연구원

배경 및 목적: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전반적인 말·언어특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이들의 언어발달지체의 위험성과 조기 언어개입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휘발달지체를 지닌 다문화가정의 아동과 그 어머니에게 컴퓨터보조학습(Computer Assisted Instruction: CAI)을 활용한 중재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어머니의 언어행동과 아동의 표현언어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어휘발달지체를 보이는 3, 4세 다문화가정 아동-어머니 10쌍(중재집단 5쌍, 통제집단 5쌍)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CAI를 활용하여 중재집단 어머니들에게 모델링, 코칭 및 피드백을 통해 촉진전략사용을 훈련하고, 훈련된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어휘지도를 하게 하였다. 부모훈련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사전·사후 검사 통제집단 실험설계를 사용하고, 어머니-아동 간 대화상황에서 어머니 언어행동의 빈도수, 아동의 표현어휘 정확도, 다른 낱말 수(NDW) 및 평균낱말길이(MLU-w)에 대한 각 사전·사후 차이에 대해 비모수 검정(Mann-Whitney U-test)을 실시하였다. **결과:** 어머니의 경우, 부모훈련을 받은 중재집단 어머니가 통제집단 어머니보다 적절한 언어행동의 총 빈도수와 질문('발화유도') 사용이 유의하게 증가되었고, 부적절한 언어행동의 총 빈도수와 '지시/주장'의 사용이 유의하게 감소되었으며, 이런 현상은 비훈련 상황으로 일반화되었다. 아동의 경우, 훈련 상황에서 중재집단 아동은 통제집단 아동에 비해 표현어휘 정확도와 평균낱말길이(MLU-w)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였고, 비훈련 상황에서 다른 낱말 수(NDW)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어 표현력이 부족한 다문화가정 어머니도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훈련을 통해 자녀의 언어발달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어휘발달지체를 지닌 아동과 어머니의 어휘학습에 CAI 사용의 유용함도 확인하였다. 『언어청각장애연구』, 2011;16;127-142.

핵심어: CAI, 부모훈련,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언어행동, 표현언어능력

[§] 교신저자

김영태
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교수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e-mail: youngtae@ewha.ac.kr
tel: 02-3277-2410

I. 서론

최근 급증하는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정과 그 자녀수의 빠른 증가에 발맞추어 우리사회가 신속히 지원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그 자녀의 언어 및 교육문제이다. 특히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된 도시 및 농어촌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그 자녀의 언어 및 교육의 어려움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언어중재프로그램에서는 아동의 의사소통문제를 최소화시키고 아동의 적절한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 부모의 역할이 특히 강조된다(Warren & Kaiser, 1986; Owens, 1999). 그 이유는 부모는 언어치료사보다 일

상생활에서 더 자주, 더 다양한 상황에서 아동과 접촉하게 되므로, 훈련된 부모는 아동이 의사소통에 대한 높은 동기나 욕구를 보일 때 그 순간을 잘 포착하여 상황에 적절한 중재를 즉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Dale & Crain-Thoreson, 1996). 또한 부모가 자녀의 중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부모는 자녀교육의 참여에 대한 만족감을 얻게 되고, 부모-전문가 간에는 공유된 가치와 믿음을 갖게 되어 그들 간에 협력이 활성화됨으로써, 결국 긍정적인 관계로 발전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Soodak & Erwin, 2000). 실제로, 발달적 말·언어장애아동이나 저소득층가정 아동에 대한 치료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일반적으로 훈련된 부모에 의해 수행된 중재가 언어치료사에 의한 중재만큼

■ 게재 신청일: 2011년 4월 20일 ■ 최종 수정일: 2011년 5월 20일 ■ 게재 확정일: 2011년 5월 29일

© 2011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http://www.kasa1986.or.kr>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였다(Alpert & Kaiser, 1992; Girolametto & Tannock, 1994; Hemmeter & Kaiser, 1994; Kaiser, Hancock & Hester, 1998; Kohnert et al., 2005; Law, Garrett & Nye, 2004).

한 질적 연구(김민화·신혜은, 2007)에서, 다문화 가정 어머니와 학습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와 인터뷰를 통해 다문화가정 취학 전 유아의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교재 변인, 교육내용, 교사의 역할의 변화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보고하였다. 그 중 교재 및 교육내용의 변인으로 문자언어학습 이전에 말하기, 듣기를 기초로 한 개념학습과 이를 위한 멀티미디어 매체를 이용한 부교재의 사용, 풍부한 어휘양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특히 교사들은 부모의 역할 중에 자녀의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어머니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어머니로부터 주어지는 구어적 경험부족으로 일반가정 아동들에 비해 한국어학습, 특히 어휘력과 읽기 이해능력의 부진함이 지적되었고, 어머니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그런 지침에 따라 자녀를 직접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의 부족함을 호소하였다. 즉, 어머니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부족하나마 자녀들의 언어나 학업을 직접 가르치고 싶은 열성과 동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녀교육에 대한 충분한 동기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에게 언어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촉진기법들을 훈련시켜서 그 자녀를 직접 가르치며 상호작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아동의 언어발달촉진을 비롯하여 부모 자신의 효능감 고취와 어머니-아동 간 긴밀한 관계형성 수립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고 강력한 지원방법이 될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언어병리학 분야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전반적인 말·언어특성(조음음운특성 및 음운인식, 수용어휘력, 수용 및 표현언어력, 이야기 산출 그리고 읽기 등)에 대한 실증적 기초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대부분의 연구결과들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지체의 위험성을 밝히고 조기 언어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권수진, 2006; 김화수, 2009; 박미단, 2009; 박상희, 2006; 박지윤, 2007; 배소영 외, 2009; 오소정·김영태·김영란, 2009; 우현경 외, 2009; 유승애, 2009; 유지현, 2009; 이수정 외, 2008; 정은희, 2004; 황상심, 2010; 황상심·정옥란, 2008). 열악한 경제적 및 언어적 환경에 처한 다문화가정의 언어지체 위험군 자녀가 장차 심각한 언어 및 학습, 사회적 부적응 문제를 겪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학 전의 조기 언어중재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또한

훈련된 부모에 의한 언어중재의 효과를 입증한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자녀의 언어발달과 언어학습에 깊은 관심과 의욕을 보이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에게 자녀의 언어발달촉진을 위한 부모훈련프로그램의 실시는 매우 필요하고 의의 있는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현재까지 다문화가정의 아동의 언어발달에 초점을 맞춘 언어중재프로그램이나 부모-아동이 함께 참여하는 언어중재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어휘발달지체를 지닌 아동을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컴퓨터보조학습(Computer Assisted Instruction: CAI, 이하 CAI)을 활용한 부모훈련을 실시하여, 어머니의 언어행동과 아동의 표현언어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정 중에서, 어휘발달지체를 보이는 3, 4세(3;7~4;10) 아동 10명과 어머니 10명으로, '어머니-아동'을 한 팀으로 하여 총 10팀으로 구성되었다. 동일한 수준의 중재 및 통제집단 구성을 위해, 아동의 생활연령 및 동작성 지능지수, 어휘능력(-1SD 이하)을 일치시키고, 어머니의 출신국, 학력, 한국어능력, 연령 및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두 집단이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짝짓기를 하여, 각 집단에 5팀씩 배정하였다. 대상아동의 특성과 대상어머니의 특성은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대상아동의 특성

구 분	중재집단					통제집단					평균	
	E ₁ ^이	E ₂	E ₃	E ₄	E ₅	평균	C ₁ ^디	C ₂	C ₃	C ₄		C ₅
성별	남	남	남	여	남		여	남	여	남	남	
연령(개월)	49	50	55	48	43	49.0	45	58	45	44	47	47.8
동작성지능 ^아	86	92	93	89	86	89.2	93	96	86	86	101	92.4
수용어휘력 ^비	28	14	21	28	22	22.6	18	31	22	21	35	25.4
표현어휘력 ^비	27	30	27	26	37	29.4	24	47	27	15	28	28.2

^아 WPPSI(박혜원·곽금주·박광배, 1996)의 동작성 지능지수

^비 REVT(김영태 외, 2009)의 수용 및 표현어휘 검사의 원점수

^이: 중재집단, ^디: 통제집단

<표 - 2> 대상어머니의 특성

구 분	중재집단						통제집단					
	EM ₁ ^{c)}	EM ₂	EM ₃	EM ₄	EM ₅	평균	CM ₁ ^{d)}	CM ₂	CM ₃	CM ₄	CM ₅	평균
출신국	중국	중국	몽골	태국	베트남		중국	몽골	몽골	태국	베트남	
연령	35	29	29	29	28	30	32	30	37	34	28	32.2
체류기간	73	63	63	81	46	65.2	72	72	96	63	80	76.6
학력	대졸	고졸	대졸	대졸	중졸		대졸	대졸	대졸	고졸	중졸	
직업	강사	노무	주부	노무	노무		강사	주부	주부	노무	노무	
어휘력 ^{a)}	99	80	54	61	43	67.4	147	68	61	42	43	72.2
이해력 ^{b)}	56	53	49	40	21	43.8	55	45	35	30	29	38.8

a) REVT의 표현언어 원점수, b) 구문의미 이해력 검사(배소영 외, 2004)의 원점수, c) EM: 중재집단 어머니, d) CM: 통제집단 어머니

2. 도구

가. 검사도구(사전·사후검사용)

(1) 40개 목표어휘목록

목표어휘목록은 어머니가 부모훈련에서 배운 촉진 전략을 사용하여 아동에게 직접 가르치게 될 40개의 목표어휘(동작동사 29개와 수식어 11개)로서, 13초 간격으로 애니메이션이 제시되도록 편집하였고,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통해 아동의 표현어휘 정확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다. 표현어휘 정확도는 아동이 목표어휘를 정확하게 발음했을 때만 1점씩 주어 총 40점 만점으로 계산되었다. 40개 목표어휘목록은 <표 - 3>과 같다.

(2) 대화표본 수집용 검사도구

대화표본 수집은 컴퓨터 활동 및 자유놀이 활동을 통해 어머니-아동 간 자연스러운 대화상황을 활용하여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서 실시되었다. 먼저, 컴퓨터 활동에는 일상의 친숙한 상황을 소재로 한 10컷의 정지화면과 1개 배경그림에 10가지 동작동사의 애니메이션이 제공되는 화면을 활용하여, 어머니-아동이 10분간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모야? 모모!”(주 에듀엔젤닷컴)와 “재미있는 기차타고”(파라다이스복지재단) CD-ROM을 일부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어머니-아동의 자유놀이 활동에서는 3종의 장난감(예: 자석블록, 케이크장식, 소꿉놀이)을 매개로 한 놀이 활동을 통해 어머니-아

<표 - 3> 40개 목표어휘목록

번호	어휘목록	번호	어휘목록	번호	어휘목록
연습1	싸워요(친구들이)	13	어질러요(방을)	27	뒹아요(걸레로)
연습2	잡아요(토끼를)	14	오려요	28	끌어요(수레를)
1	고쳐요(의자를)	15	치워요(장난감을)	29	켜요(불을)
2	구워요(생선을)	16	털어요(옷을)	30	더러워요
3	깎아요(사과를)	17	풀어요(코를)	31	깨끗해요
4	끓여요(물을)	18	흔나요(엄마한테)	32	똥똥해요
5	널어요(빨래를)	19	흘려요(물을)	33	날씬해요
6	넘쳐요(물이)	20	말려요(머리를)	34	높아요
7	누어요(오줌을)	21	빚어요(머리를)	35	낮아요
8	떨어뜨려요(선물을)	22	두드려요(문을)	36	빨라요
9	밀어요(바위를)	23	부어요(물을)	37	느려요
10	붙여요(반창코를)	24	넘어요(땀들을)	38	적어요
11	빨아요(빨대로)	25	매달려요(철봉에)	39	밝아요
12	숨겨요	26	돌려요(홀라후프를)	40	가벼워요

동의 10분간의 대화표본을 수집하였다.

나. 중재도구

중재도구는 2종의 CD-ROM으로, 중재집단 어머니가 아동에게 40개의 목표어휘를 학습시킬 때 사용하는 어휘학습용 소프트웨어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단법인 파라다이스복지재단에서 제작된 “신나는 배를 타고” 및 “재미있는 기차 타고”의 어휘학습 일부와 에듀엔젤닷컴(주)에서 제작된 “모모야? 모모!”의 어휘학습의 일부를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일상생활의 여러 친근한 상황(예: 주방)을 배경화면으로 하여, 멀티미디어(동작의 애니메이션, 글자 팝업창, 내레이터의 음성제공)를 활용하여 아동의 흥미를 끌며, 시청각적으로 어휘개념 및 발음모델링을 제공하고 있다. 어휘학습용 도구로서 멀티미디어의 선택은 언어장애아동 및 실어증 성인, 정신지체아동, 단순언어장애 아동 등을 대상으로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어휘력 향상과 구문증가를 보인 국내외 선행연구(김영태·김영란·박소현, 2005; 김영태·박소현·김영란, 2005; 오영란, 2002; 정유진 외, 2003; Harn, 1986; Leonard, 1975)에 근거하였다.

3. 연구 절차

가. 예비연구

예비연구는 2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1차 예비검사에서는 3, 4세의 일반아동 4명을 대상으로 예비어휘목록(55개)에 대해 편집된 동영상을 제시하여 애니메이션 화면에 대한 아동의 인지도 및 반응 속도 등을 관찰하고, 5가지의 장난감에 대한 선호도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40개 목표어휘 목록과 자유놀이활동 도구인 장난감 3종이 선정되었다.

2차 예비검사에서는 실험에 참가하지 않는 3, 4세의 다문화가정 아동 2명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컴퓨터 활동과 자유놀이 활동에 대한 관찰을 통해 문제점들을 파악, 수정하여 본 연구에 반영하였다. 예로, 아동이 조작할 컴퓨터 자판에 스티커를 붙이기, 컴퓨터 활동시간의 조정(예: 회기 당 10분씩 2회의 어머니-아동 간 어휘학습) 및 장난감 사용시간 조절(한 종류 당 약 3분 정도) 등이다.

나. 사전검사

연구대상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가정에 방문하여, 연구목적 및 진행절차, 훈련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통제집단의 경우 부모훈련 참여의사를 밝힌 3팀에 대해서 실험이 끝난 후 동일한 부모훈련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

사전검사는 40개 목표어휘목록에 대한 표현어휘력 검사, 어머니-아동 간 대화표본 수집을 위한 컴퓨터 활동 그리고 자유놀이 활동 순으로 진행하였고, 전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하였다. 컴퓨터 활동은 정지화면, 애니메이션 화면 순으로 각 5분 정도씩 실시하였는데, 검사 실시 전에, 어머니에게 기기 조작법을 설명하고 5분정도 어머니 스스로 탐색하고 연습해보도록 하였다. 자유놀이 활동에서는, 아동이 10분 동안 3종의 장난감을 골고루 조작할 수 있도록 연구자가 어머니에게 적절한 시기에 신호를 주었다.

다. 중재실시

(1) 촉진전략의 소개 및 사용절차

부모훈련에 사용할 촉진전략은 선행문헌(김금주, 2000; Senechal et al., 1995; Whitehurst et al., 1998)을 근거로 하여, 아동의 표현언어능력 향사에서 그 효과가 입증된 기법들을 선택하여 구성한 후, 예비연구를 통해 수정 및 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모훈련용 촉진전략의 조작적 정의 및 예는 <부록-1>에 제시되어 있다.

부모훈련에서 촉진전략의 사용절차는 ‘질문하기’ ⇒ 비언어적/언어적 반응(기다려주기 및 칭찬/격려하기) ⇒ ‘반응하기’ ⇒ ‘설명하기’로 진행되며, 어머니가 아동에게 어휘지도를 할 때 구체적인 사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시된 화면에 대해 아동의 발화를 유도하는 ‘질문하기’(개방형, 행동/상태, 생각확인)를 한다. 질문을 한 후에는 잠시 아동의 반응을 기다려준다(예: 마음으로 5까지 천천히 세기). 아동의 반응이 없으면, 언어적 단서를 제공하여 아동의 발화를 유도해본다(발화유도질문). 본 연구에서는 ‘예/아니오’, 선택형, 단답형(무엇, 어디, 언제)과 같이 한 낱말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 유형은 훈련목표에서 제외하였고, 서술형이나 두 낱말 문장 발화를 유도하기에 적절한 질문유형인, 개방형(왜, 어떻게), 행동/상태(예: 뭐해요?, 무슨 일이야?), 생각확인(예: ‘○○는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낱말

회상에 어려움을 지닌 아동의 말을 이끌어 내는 발화유도(예: 불을 켜...?) 등을 중점적으로 훈련하였다.

둘째, 아동의 발화에 대한 ‘반응하기’로서, 아동이 말을 하면 우선 칭찬/격려나 언어적 동의를 해주고(대답/동의), 아동의 말을 반복해줌으로써 아동의 의도가 수용됐음을 확인해준다(반복/확인). 그리고 아동의 말에 한 두 낱말을 첨가하여 말을 늘여준다(확장/확대). 만일 아동의 말이 불분명해서 알아듣기 어렵거나 정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내용일 경우에는 되물어서 정확한 말을 유도한다(명료화). 아동의 말이 틀린 경우에는 아동의 말을 수정해주고(예: 수정), 이어서 아동의 말을 정확하게 확장/확대한 문장으로 한 번 더 말해준다(확장/확대). 만일 아동이 질문이나 요구를 할 때는 반드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주고, 주제에 벗어난 이야기를 하더라도 수용적인 태도로 간단히 반응을 해준 후에 원래 이야기로 돌아온다.

셋째, ‘설명하기’의 예로는 화면에 보이는 사건, 상황, 배경에 대해 간단히 묘사해서 아동의 이해를 도와주거나(상황-사건/상태), 화면에 보이는 사건이나 행동에 대해 아동의 현재 감정이나 과거의 경험과 연결시켜 말해줌으로써 아동의 반응을 끌어내도록 한다(경험연결). 또는 화면에 제시되지 않은 동기, 이유/원인이나 관련성에 대해 적절하게 말해주어 아동의 이해를 돕는다(추론/예측).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아동간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부적절한 언어행동을 줄이고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훈련기간 내내 사용해야 하는 몇 가지 전략을 소개하였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지시/주장을 하는 대신 제안형식으로 말하기, 아동이 말을 할 때 방해하지 않고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주고, 아동의 발화나 요구를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반응해주기, 아동의 말에 부정적 반응(예: 비난하기, 놀리기, 빈정거리기 등)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 등이다.

(2) 부모훈련 내용 및 진행일정

부모훈련은 주 2회, 1시간씩, 총 12회기의 개별지도로 진행되었다. 훈련 시에는 연구자와 어머니가 피드백과 토의 중에 아동의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보조인 1명이 옆방에서 대기하다가 아동을 돌보는 역할을 하게 하였다.

훈련내용은 제1회 차에 “자녀와 효과적인 언어적 상호작용하기”(Manolson, Ward & Dodington, 1995)

에 대한 이론 강의, 컴퓨터조작방법 익히기, 어휘지도 시연 등이 실시되었고, 2회기~12회기에는 촉진전략 설명하기, 모델링하기(연구자-아동 간 어휘지도, 총 2회 제공), 어머니 시연(어머니-아동 간 어휘학습, 필요시 연구자의 코치제공), 피드백 및 차시 지도안 제공 및 설명(연구자의 모델링)으로 이루어졌다. 어머니 어휘지도 장면은 모두 비디오 녹화를 하여, 피드백과 토의 시에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는 비디오테이프가 유아 및 어머니의 강점과 필요를 좀 더 객관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도구임을 보고한 선행연구(Mahoney & Powell, 1988, 이소현(2003)과 이금진(2008)에서 재인용)에 근거하였다.

한편 통제집단에게는 연습용 CD를 제공하였으나, 어머니에게는 촉진전략 사용방법을 훈련하지 않았고, 연구보조자 감독 하에 통제집단 아동의 노출조건과 같이 총 11회기에 걸쳐, 회기 당 20분 정도내로 어머니와 아동이 함께 사용하도록 지시하였고, 이를 매주 전화로 독려 및 확인하였다.

라. 사후검사

중재 및 통제집단 아동들에 대한 사후검사는 부모훈련을 종료한 바로 다음 회기부터 사전검사와 동일한 절차와 동일한 도구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중재집단 어머니와 “부모훈련 만족도 설문지”를 함께 작성하였다.

4. 자료 분석

부모훈련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사전·사후검사 통제집단 실험설계(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를 사용하고, 자료 분석은 어머니 언어행동의 빈도수, 아동의 표현어휘 정확도, 다른 낱말 수(the Number of Different Word: NDW, 이하 NDW) 및 평균낱말길이(Mean Length of Utterance-word: MLU-w, 이하 MLU-w)에 대한 중재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차이에 대해 비모수 검정(Mann-Whitney *U*-test)을 실시하였다. 이는 대상자 수가 충분하지 않고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이룬다는 가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5. 평가자간 신뢰도

어머니-아동 대화표본에 대한 전사 및 분석은 녹화된 비디오자료의 30%에 대해 연구자 1명과, 평가자

3인이 각각 독립된 장소에서 실시하였다. 연구자와 평가자 1, 2가 실시한 아동의 자발화 전사 및 분석에 대한 평가자간 신뢰도는 98.0%이었고, 연구자와 평가자 3이 실시한 어머니의 언어행동 분석에 대한 평가자간 신뢰도는 97.4%였다. 평가자 1, 2는 현재 언어병리학 석사과정에 있는 대학원생들로서, 유사한 연구에서 자료 전사 및 분석의 경험을 지닌 훈련된 조교들이었고, 평가자 3은 언어병리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5년의 임상경력을 지닌 1급 언어치료사로서, 연구자는 평가자들에게 본 연구 목적에 대한 일체의 사전정보를 주지 않았다.

6. 사회적 타당도

사회적 타당도는 선행연구(박소현, 2007; 이금진, 2008)를 참고하고, 본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만든 “부모훈련 만족도 평가 설문지”를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부모훈련 만족도 평가는 크게 부모훈련 효과(예: 촉진전략들의 사용, 적용, 유지, 아동과 친밀감 형성 정도에 대한 질문) 및 프로그램 만족도(예: 훈련시간 적절성, 정보/자료의 유용성, 어머니와 가족의 만족도, 후속 훈련 참가의 의향, 훈련 권유 의향)에 대한 내용이며, 문항 1~25번까지는 5점 척도(예: 매우 그렇다-5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질문이고, 26~30번까지는 주관적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표 - 4> 어머니집단 간 적절한 언어행동 빈도수의 사전·사후 차이에 대한 비모수 검정결과

구분	중재집단(n=5)			통제집단(n=5)			U	p
	사전 M(SD)	사후 M(SD)	차이 M(SD)	사전 M(SD)	사후 M(SD)	차이 M(SD)		
질문 하기	7.80 (6.61)	26.40 (4.51)	18.60 (5.90)	10.20 (3.03)	16.80 (6.30)	6.60 (7.64)	2.00	.027
반응 하기	21.80 (9.09)	50.60 (20.79)	28.80 (24.74)	21.60 (4.04)	24.00 (7.84)	2.40 (8.88)	4.00	.075
설명 하기	9.60 (5.13)	10.40 (4.72)	.80 (3.96)	5.60 (4.56)	6.60 (4.77)	1.00 (2.35)	11.50	.832
적절한 행동 총 빈도수	40.60 (17.02)	87.40 (27.69)	46.80 (28.49)	36.60 (5.37)	50.20 (11.90)	13.60 (6.62)	2.00	.028*

* $p < .05$

III. 연구 결과

1. 부모훈련이 어머니의 언어행동에 미치는 효과

가. 어머니 집단 간 적절한 언어행동의 빈도 비교

어머니집단 간 적절한 언어행동 빈도수의 사전·사후 차이에 대한 비모수 검정(Mann-Whitney U -test)을 실시한 결과, 적절한 언어행동의 총 사용빈도수와 질문하기 유형에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각각 $U = 2.00$, $U = 2.00$, $p < .05$).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질문하기’의 하위범주별 빈도수의 사전·사후 차이에 대한 비모수 검정(Mann-Whitney U -test)을 실시하였는데, 이때, 유의도 수준은 비모수 검정의 유의도 수준(.05)을 5개 하위범주로 나눈 수준(.01)으로 수행하였다. 검정결과, ‘발화유도’에서 두 집단 간 빈도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U = .00$, $p < .01$). 어머니 집단 간 적절한 언어행동 빈도수의 사전·사후 차이에 대한 비모수 검정결과 및 ‘질문하기’의 하위범주별 빈도수의 사전·사후 차이에 대한 비모수 검정 결과는 <표 - 4>와 <표 - 5>에 각각 제시하였다.

나. 어머니 집단 간 부적절한 언어행동의 빈도 비교

어머니집단 간 부적절한 언어행동 빈도수의 사전·사후 차이에 대한 비모수 검정(Mann-Whitney U -test)

<표 - 5> ‘질문하기’의 하위범주별 빈도수의 사전·사후 차이에 대한 비모수 검정 결과

구분	중재집단(n=5)			통제집단(n=5)			U	p
	사전 M(SD)	사후 M(SD)	차이 M(SD)	사전 M(SD)	사후 M(SD)	차이 M(SD)		
발화 유도	.20 (.45)	5.40 (2.07)	5.20 (2.28)	.20 (.45)	.60 (.89)	.40 (.55)	.00	.008*
개방형 행동	5.20 (4.87)	10.60 (3.98)	5.40 (2.61)	3.80 (2.28)	9.40 (4.16)	5.60 (4.72)	12.00	.916
생각 확인	1.20 (1.10)	7.00 (1.58)	5.80 (2.05)	5.20 (3.56)	6.60 (4.78)	1.40 (4.51)	5.50	.140
제안	.60 (.55)	1.80 (1.30)	1.20 (1.30)	.80 (1.79)	.20 (.45)	-.60 (1.95)	5.50	.118
제안	.60 (.55)	1.60 (.89)	1.00 (1.41)	.20 (.45)	.00 (.00)	-.20 (.45)	6.00	.095

* $p < .01$

을 실시한 결과, 부적절한 언어행동의 총 빈도수와 '지시/주장' 유형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각각 $U = 2.00$, $U = 2.00$, $p < .05$). 어머니 집단 간 부적절한 언어행동 빈도수의 사전·사후 차이에 대한 비모수 검정 결과는 <표-6>과 같다.

<표-6> 어머니집단 간 부적절한 언어행동 빈도수의 사전·사후 차이에 대한 비모수 검정 결과

구분	중재집단(n=5)			통제집단(n=5)			U	p
	사전 M(SD)	사후 M(SD)	차이 M(SD)	사전 M(SD)	사후 M(SD)	차이 M(SD)		
지시/주장	5.20 (2.68)	3.20 (1.30)	-2.00 (1.87)	2.20 (1.64)	4.60 (4.83)	2.40 (3.36)	2.00	.027
방해/무시	4.00 (2.35)	.20 (.45)	-3.80 (1.92)	1.20 (2.17)	.00 (.00)	-1.20 (2.17)	4.00	.071
부정적 반응	.40 (.89)	.20 (.45)	-.20 (.45)	.00 (.00)	.00 (.00)	.00 (.00)	10.00	.317
부적절한 행동 총 빈도수	9.60 (1.14)	3.60 (1.14)	-6.00 (1.23)	3.40 (2.51)	4.60 (4.83)	1.20 (5.02)	2.00	.025*

* $p < .05$

다. 언어행동의 비 훈련 상황으로의 일반화 효과

어머니-아동의 10분 간 자유놀이 활동에서 수집한 대화표본에서 어머니의 언어행동 사용 빈도수를 집계하여, 비 훈련 상황에서의 적절한 언어행동 및 부적절한 언어행동 빈도수의 사전·사후차이에 대한 비모수 검정(Mann-Whitney U -test)을 실시한 결과는 각

<표-7> 비 훈련 상황에서 어머니집단 간 적절한 언어행동 빈도수의 사전·사후 차이에 대한 비모수 검정 결과

구분	중재집단(n=5)			통제집단(n=5)			U	p
	사전 M(SD)	사후 M(SD)	차이 M(SD)	사전 M(SD)	사후 M(SD)	차이 M(SD)		
질문하기	8.40 (4.04)	8.40 (3.44)	.00 (4.00)	8.40 (4.72)	7.20 (3.90)	-1.20 (3.96)	10.00	.595
반응하기	30.00 (12.14)	38.20 (10.35)	8.20 (6.72)	30.60 (7.77)	19.60 (5.22)	-11.00 (2.83)	.00	.008**
설명하기	7.00 (2.74)	9.20 (5.59)	2.20 (8.11)	6.60 (3.29)	8.60 (3.36)	2.00 (5.39)	12.00	.916
적절한 언어행동 총 빈도수	45.40 (12.92)	55.80 (15.90)	10.40 (9.45)	45.60 (8.65)	35.40 (6.99)	-10.20 (7.50)	1.00	.016*

* $p < .05$, ** $p < .01$

각 <표-7>, <표-8>과 같다.

검정 결과에 따르면, 비 훈련 상황에서 어머니집단은 적절한 언어행동의 총 빈도수($U = 1.00$, $p < .05$)와 '반응하기' 유형($U = .00$, $p < .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부적절한 언어행동의 총 빈도수와 '지시/주장' 유형에서도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각각 $U = 1.50$, $U = 3.00$, $p < .05$).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부모훈련 후 중재 어머니 집단이 통제 어머니집단에 비해 적절한 언어행동은 유의하게 증가되었고, 부적절한 언어행동은 유의하게 감소되었으며, 이런 현상은 비 훈련 상황으로 일반화되었다. 다만, 훈련 상황에서는 중재 어머니집단이 통제 어머니집단에 비해 적절한 언어행동 중 질문하기 유형(예: '발화유도')을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였고, 비 훈련 상황에서는 "반응하기"유형을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부모훈련이 아동의 표현언어능력에 미치는 효과

가. 부모훈련이 아동의 표현언어능력에 미치는 효과

40개의 목표어휘목록에 대한 두 아동집단의 표현 어휘 정반응수(예: 정확하게 발음한 어휘에 대해 1점을 가산함)를 집계하여, 아동집단 간 사전·사후 표현 어휘 정확도 점수 차에 대한 차이 검정을 비모수 검정(Mann-Whitney U -test)으로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중재집단 아동이 통제집단 아동에 비해 표현어휘

<표-8> 비 훈련 상황에서 어머니집단 간 부적절한 언어행동 빈도수의 사전·사후 차이에 대한 비모수 검정 결과

구분	중재집단(n=5)			통제집단(n=5)			U	p
	사전 M(SD)	사후 M(SD)	차이 M(SD)	사전 M(SD)	사후 M(SD)	차이 M(SD)		
지시/주장	22.00 (11.47)	16.20 (6.61)	-5.80 (6.02)	17.60 (11.15)	22.60 (12.58)	5.00 (7.71)	3.00	.047
방해/무시	2.20 (1.64)	.20 (.45)	-2.00 (1.87)	1.20 (2.68)	.60 (.89)	-.60 (2.61)	6.00	.159
부정적 반응	1.80 (4.03)	.00 (.00)	-1.80 (4.03)	.60 (.89)	1.00 (1.41)	.40 (.55)	6.00	.093
부적절한 언어행동 총 빈도수	26.00 (9.98)	16.40 (6.95)	-9.60 (5.37)	19.40 (10.78)	24.20 (12.05)	4.80 (7.66)	1.50	.021*

* $p < .05$

정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U = .00, p < .01$). 그리고 컴퓨터 활동에서 수집된 어머니-아동의 10분간 대화 표본을 분석하여, 두 NDW 및 MLU-w의 사전·사후 차이에 대한 비모수 검정(Mann-Whitney U -test) 결과에서는 MLU-w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U = 2.00, p < .05$), NDW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5$). 아동집단 간 표현어휘 정확도, NDW 및 MLU-w의 사전·사후 차이에 대한 비모수 검정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었다.

<표 -9> 아동집단 간 표현어휘 정확도, NDW 및 MLU-w의 사전·사후 차이에 대한 비모수 검정 결과

구분	중재집단(n=5)			통제집단(n=5)			U	p
	사전 M(SD)	사후 M(SD)	차이 M(SD)	사전 M(SD)	사후 M(SD)	차이 M(SD)		
표현 어휘 정확도	7.40 (3.05)	33.00 (6.32)	25.60 (5.03)	7.80 (5.26)	10.60 (6.35)	2.80 (1.92)	.00	.009**
NDW	72.60 (19.35)	92.60 (25.67)	20.00 (20.32)	57.20 (19.11)	53.00 (18.47)	-4.20 (12.93)	4.00	.076
MLU -w	2.15 (.69)	2.65 (.56)	.50 (.73)	2.09 (.77)	1.77 (.49)	-.32 (.33)	2.00	.028*

* $p < .05$, ** $p < .01$

나. 비훈련 상황으로의 일반화 효과

자유놀이 활동에서 수집한 어머니-아동의 10분 간 대화표본을 분석하여, 아동집단 간 NDW 및 MLU-W에 대한 사전·사후 차이 검정을 비모수 검정(Mann-Whitney U -test)으로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비 훈련 상황에서 아동집단 간 NDW 및 MLU-w의 사전·사후 차이에 대한 비모수 검정 결과

구분	중재집단(n=5)			통제집단(n=5)			U	p
	사전 M(SD)	사후 M(SD)	차이 M(SD)	사전 M(SD)	사후 M(SD)	차이 M(SD)		
다른 발달 수 (NDW)	65.20 (22.44)	83.40 (27.37)	18.20 (20.57)	45.20 (25.53)	27.20 (21.56)	-18.00 (20.21)	1.00	.016*
평균발달 길이 (MLU-w)	2.43 (.54)	2.46 (.52)	.03 (.23)	1.92 (.67)	1.68 (.30)	-.24 (.54)	9.00	.465

* $p < .05$

검정결과, 두 아동집단 간 NDW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U = 1.00, p < .05$), MLU-w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5$).

이상의 결과에서, 훈련을 받은 중재 어머니집단의 아동은 훈련 상황에서 표현어휘 정확도와 MLU-w에서 향상을 보였고, 비 훈련 상황에서 NDW의 증가가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1. 부모훈련이 어머니의 언어행동에 미친 효과에 대한 논의

부모훈련에 참가한 중재집단 어머니는 통제집단 어머니에 비해 훈련 상황(컴퓨터 활동)에서 적절한 언어행동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부적절한 언어행동은 유의하게 감소되었으며, 이 현상은 비훈련 상황(자유놀이상황)으로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어머니의 언어행동 변화는 부모훈련의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하는 것으로, 부모교육을 통해 어머니의 언어행동의 질과 양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이금진, 2008; Lonigan & Whitehurst, 1998; Valdez-Menchaca & Whitehurst, 1992; Whitehurst et al., 1998).

훈련 상황에서 중재집단 어머니가 유의한 증가를 보인 적절한 언어행동의 유형은 ‘발화유도’ 질문이었는데, 이는 ‘발화유도’ 질문이 비교적 사용하기 쉽고, 중재집단 아동들이 표현어휘발달지체를 지닌 아동들이었으므로 그 특성 상 낱말회상이나 낱말인출의 어려움을 보였기 때문에, 보다 직접적인 낱말표현을 끌어내기 위해 더 자주 사용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훈련 상황에서는 ‘질문하기’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이고, 비 훈련 상황에서는 ‘반응하기’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는데, 이는 좀 더 학습적인 형식의 훈련 상황과 자유놀이 형식의 비 훈련 상황이라는 상황적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훈련 상황에서는 컴퓨터에 제시된 장면에 대해 아동의 발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로 어머니가 주체가 되어 대화를 유도하지만, 비 훈련 상황에서는 아동이 장난감을 직접 다루면서 적극적인 주체자로서 놀이와 대화를 이끌어가게 된다. 따라서 어머니입장에서는 아동에게 질문하기보다는 아동의 리드를 따르며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역

할을 자연스럽게 맡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비 훈련 상황에서 증재집단 어머니가 보여준 적절한 언어행동 중 ‘반응하기’의 유의한 증가와 부적절한 언어행동 중 ‘지시/주장’의 유의한 감소현상은 서로 연관성을 지닌다. 즉, 어머니가 아동을 일방적인 지시나 주장의 대상자가 아닌 대화상대자로서 여기며,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런 일반화 현상은 만일 부모훈련 후에도 비정기적으로라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주어질 때, 훈련받은 어머니가 다른 학습지도나 놀이 활동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적절한 언어행동을 계속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증재집단 어머니들이 보인 적절한 행동의 유의한 증가와 부적절한 행동의 유의한 감소현상은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부모훈련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언어행동에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어머니의 언어행동에서의 양적인 변화는 부모훈련 만족도 설문지 분석에서 밝혀진 질적인 변화에 의해 더욱 지지되었다. 교육프로그램 후 어머니의 변화에 대한 주관적 대답을 살펴본 결과, 부모훈련 후에 적절한 언어행동을 많이 사용하고 부적절한 언어행동의 사용을 자제하려고 노력하게 되었고, 특히 아동과의 어휘학습 동안 아동의 언어수준이나 생각을 알게 되어 아동의 잘못에 대한 부적반응(예: 화내기, 비난하기 등)에 대한 반성의 계기가 되었고, 아동과 대화 시간이나 대화양이 많아지고, 아동의 반응을 기다려 줄 수 있게 되고, 아동의 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과 칭찬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어머니 태도의 질적 변화는 부모훈련의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사회적 타당성을 확인해 주었다.

2. 부모훈련이 아동의 표현언어능력 향상에 미친 효과

증재집단 어머니의 아동들이 통제집단 어머니의 아동들보다 훈련 상황에서 표현어휘 정확도와 MLU-w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였고, 비 훈련 놀이상황에서는 NDW가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도 체계적인 부모훈련을 통해 자녀들의 표현언어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차후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부모교육정책 결정에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는 고무적인 성과라 하겠다.

통제집단의 경우, 훈련 상황에서 NDW의 사후점수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표 - 9>). 또한 비훈련(자유놀이상황)에서도 발화가 다소 감소되었는데(<표 - 10>), 이는 촉진전략 훈련을 받지 않은 통제집단의 어머니들이 아동이 놀이에 집중할 때 말을 유도하려는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훈련 상황에서 증재집단 아동은 통제집단 아동에 비해 유의한 평균날말길이(예: MLU-w)의 증가를 보였으나, 비 훈련 상황으로 일반화되지 않았는데, 이는 단기간 학습의 제한점 및 자유놀이의 고유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평균날말길이 증가의 일반화는 3개월의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며, 자유놀이 상황이 아동에게 이미 습득한 구문구조를 스스로 사용해 볼 맥락을 항시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Southwood & Russell, 2004). 또한 놀이상황은 학습상황보다는 정교한(elaborated) 언어구사에 대한 부담이 적은 환경으로서, 구어적 발화보다는 장난감 조작에 좀 더 집중하게 되므로 발화길이나 발화 양에서의 변화가 적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해석의 근거로, 자발화 표본 수집방법을 비교한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대화나 이야기가 자유놀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구문산출을 유도한다고 보고하였다(김성수 · 이상경, 2008; Evans & Craig, 1992; Wren, 1985). 학령 전 언어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자발화 수집방법을 분석한 김성수 · 이상경(2008)은 자유놀이를 통해 측정된 아동의 수행수준은 아동의 실제 구문능력보다 비교적 저평가되었을 가능성을 보고하였다. Wren(1985)은 구문결함을 보이는 6세 아동연구에서 이야기와 대화상황에서의 평균발화길이(Mean Length of Utterance-morpheme: MLU-m)가 자유놀이상황에서보다 길었고 발화의 구문복잡성도 더 높았다고 주장했으며, 8~9세의 언어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Evan & Craig(1992) 연구에서도 대화방식이 자유놀이에 비해 보다 많은 발화와 보다 질적으로 높은 언어를 유도했다고 보고하였다.

3. 부모훈련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인에 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부모훈련을 통해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아동의 표현언어발달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부모훈련효과에 영향을 준 기타 변인으로는 CAI의 활용과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을 들 수 있다. 먼저, 어머니와 아동의 어휘학습에 사용된 CAI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CAI는 멀티미디어를 사용하여 그림 자료나 그림책 보다 더 큰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며, 애니메이션으로 된 동작 동사의 시각화로 개념이해를 돕고, 즉각적인 음성적·시각적(글자) 피드백 및 반복적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내레이터의 정확한 발음제공은 부정확한 발음을 지닌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아동에게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고, 팝업창에 나타나는 해당 글자는 어머니에게 소리와 글자를 연결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어휘습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베트남 출신의 어머니를 둔 아동은 내레이터의 음성을 듣고 어머니의 잘못 발음한 단어를 지적해주기도 하고, 그 어머니는 자녀의 어휘지도 중에 소리와 글자를 통해 몰랐던 어휘를 배우기도 하였다. 이는 문해력이 낮은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아동에게는 그림책 활용에 앞서 멀티미디어 매체를 이용한 CAI의 사용이 어휘습득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아동 혼자서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음성이나 글자를 그대로 보고 듣기만 하기보다 어머니가 함께 언어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새로운 목표어휘를 함께 학습하면서, 적절한 질문으로 아동의 발화를 유도하고 아동의 발화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부족한 부분을 설명해 주고, 칭찬과 격려 등의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등의 촉진전략을 사용한다면, 더 효과적인 어휘학습 도구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어머니의 한국어구사능력이 부모훈련 효과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한국계 중국인 어머니 2명의 경우는 한국어의 이해와 표현이 유창한 편에 속하여, 촉진방법에 대한 이해나 활용 면에서 다른 어머니들(몽골, 베트남, 태국출신의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한국계 중국인 어머니들에게 좀 더 집중적이고 강화된 훈련을 제공한다면, 준전문가(또는 같은 출신지역의 부모교육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한국어 구사능력이 다소 부족한 다른 어머니들의 경우, 12회기의 훈련기간이 촉진전략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짧은 감이 있었다. 따라서 한국어 구사능력이 부족한 어머니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계획 시에는 좀 더 긴 훈련기간(예를 들면, 현재의 12회기에 4~6회기 추가)과 좀 더 많은 모델링을 제공하고,

비디오테이프로 다른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의 예를 직접 보고 들으며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보다 유연한 프로그램 운용이 필요하다 하겠다. 어휘의 빠른 습득을 위해서는 동일어휘의 반복적인 노출보다 다양한 의사소통적 맥락과 다양한 어휘에 대한 노출빈도를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고려하여(홍경훈, 2009; Hoff & Naigles, 2002), 추가된 훈련기간에는 새로운 어휘목록을 몇 개 더 선정하고 다양한 주제와 맥락에서 촉진전략을 훈련하면 좀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특히, 한국어 구사능력이 낮은 어머니들의 경우는 지속적인 한국어 교육도 필요하고, 자녀의 언어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부모훈련의 연장선에서 같은 출신지역의 준전문가를 투입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와 교류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 지역사회기관에 대한 정보와 적극적인 연결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과제라 하겠다.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인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부모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받은 어머니가 아동에게 직접 어휘지도를 하는, 어머니-아동 동시참여 중재프로그램의 최초의 시험적 시도로서,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체계적인 부모훈련을 통해 자녀의 표현언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는 실증적 결과를 보여주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다만, 중재집단의 대상자 수가 적고 3개월간의 짧은 훈련 기간이었다는 제한점으로 인해 결과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다. 후속연구들에서는 훈련 대상 및 훈련 매체의 확장, 중재집단 어머니들의 외부조건의 통제 등이 고려되기를 제안한다. 즉, 다문화가정의 3세 이전의 영유아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구사력과 문해력이 낮은 다문화가정 어머니에 대한 부모훈련 효과 연구나, CAI외에 놀이 활동이나 책읽기 활동으로 부모훈련이 확대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어머니의 학력과 학습자극 환경이 저소득층 아동의 언어능력의 발달을 예측한다는 선행연구(이지연·곽금주, 2008)의 보고를 고려하여, 어머니들의 국적, 학력, 한국어능력 및 물리적 가정환경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또한 한국어와 함께 모국어를 비슷한 빈도로 사용하는 이중언어환경에서, 어머니가 모국어로도 촉진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아동의 어휘 및 언어발달의 양상에 어떤 변화를 보일지에 대한 후속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권수진(2006). 다문화가정아동과 일반가정아동의 생성어휘 대기 특성 비교.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금주(2000).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 유형과 영아의 언어 발달에 관한 연구: 놀이·일상·책 읽어주기 상황을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민화·신혜은(2008). 다문화가정 취학 전 유아 한국어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연구. 『아동학회지』, 29(2), 155-176.
- 김성수·이상경(2008). 자발적 발화 표본 수집 방식으로서의 대화, 자유놀이 및 이야기 비교. 『언어청각장애연구』, 13(4), 44-62.
- 김영태·김영란·박소현(2005).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동사습득훈련이 언어발달지체아동의 선 그림에 대한 자극일반화 및 발화길이에 미치는 효과. 『언어치료 연구』, 14(4), 81-96.
- 김영태·박소현·김영란(2005). 보조적인 언어훈련 소프트웨어의 활용이 언어발달지체아동의 동사표현 및 복문의 습득에 미치는 효과. 『언어청각장애연구』, 10(2), 61-79.
- 김영태·홍경훈·김경희·장혜성·이주연(2009).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VT)』.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김화수(2009). 한국 다문화사회에서 언어치료사의 역할모형에 대한 제안. 『언어치료연구』, 18(4), 185-209.
- 박미단(2009). 학령전기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아동의 언어 발달 특성 비교. 나사렛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상희(2006).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 『제14회 한국 언어치료학회 학술발표대회』, 대구대학교, 대구.
- 박소현(2007). 장애유아 통합교사를 위한 언어치료 지원요구 분석 및 교사지원교육 효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지윤(2007). 이중언어 환경 아동의 언어발달 특성.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원·곽금주·박광배(1996). 『한국판 웨슬러 유아지능 검사(K-WPPSI)』.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 배소영·곽금주·김근영·정경희·김효정(2009). 다문화 가정 어머니와 발달지원자 설문을 통해 본 아동의 언어 환경 및 언어발달 실태. 『언어치료연구』, 18(4), 165-184.
- 배소영·임선숙·이지희·장혜성(2004). 『구문의미이해력 검사』.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오소정·김영태·김영란(2009). 서울 및 경기지역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언어특성과 관련변인에 대한 기초연구. 『특수교육연구』, 8(1), 137-161.
- 오영란(2002). 보호자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언어 훈련이 비유창성 실어증 환자의 문장이해 및 문장 표현 능력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현경·정현심·최나야·이순형·이강이(2009).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유아기 자녀의 언어발달. 『아동학회지』, 30(3), 23-36.
- 유승애(2009). 4,5,6세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발달실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지현(2009). 다문화가정 아동의 의문문 이해발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금진(2008). 언어치료와 함께 실시한 소집단 부모참여 프로그램이 어머니와 발달지체 영유아의 상호작용 행동 및 영유아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소현(2003). 『유아특수교육』. 서울: 학지사.
- 이수정·신지철·김향희·김화수(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어휘능력 연구: K-BNT-C를 중심으로. 『언어치료연구』, 17(3), 95-115.
- 이지연·곽금주(2008). 아동초기 사회경제적 지위(SES)와 가정환경이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3), 151-165.
- 정유진·김영태·심현섭·남기춘·권미선(2003).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언어치료가 실어증환자의 낱말 이해 및 표현능력에 미치는 효과. 『언어청각장애연구』, 8(3), 112-133.
- 정은희(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발달과 언어환경. 『언어치료연구』, 13(3), 33-52.
- 홍경훈(2009). 초기 표현어휘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상호작용요인 분석. 『언어치료연구』, 18(3), 35-49.
- 황상심(2010). 다문화가정 유아의 초기 표현어휘 발달과 성차. 『언어치료연구』, 19(1), 193-209.
- 황상심·정옥란(2008). 경상북도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발달특성 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13(2), 174-192.
- Alpert, C. L., & Kaiser, A. P. (1992). Training parents as milieu language teachers.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16(1), 31-52.
- Dale, P. S., & Crain-Thoreson, C. (1996). Parent-child book reading as an intervention technique for young children with language delays.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6(2), 213-236.
- Evans, J. L., & Craig, H. K. (1992). Language sampling collection and analysis: Interview compared to freeplay assessment context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5, 343-353.
- Girolametto, L., & Tannock, R. (1994). Correlates of directiveness in the interactions of fathers and mother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7, 1178-1191.
- Harn, W. E. (1986). Facilitating acquisition of subject-verb utterances in children: Actions, animation, and pictures. *Journal for Computer Users in Speech and Hearing*, 2(2), 95-101.
- Hemmeter, M. L., & Kaiser, A. P. (1994). Enhanced milieu teaching: Effects of parent-implemented language intervention.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18, 269-289.
- Hoff, E., & Naigles, L. (2002). How children use input to acquire a lexicon. *Child Development*, 73, 418-433.
- Kaiser, A. P., Hancock, T. B., & Hester, P. P. (1998). Parents as co-interventionists: Research on applications of naturalistic language teaching procedures. *Infants and Young Children*, 10(4), 1-11.
- Kohnert, K., Yim, D., Nett, K., Kan, P. F., & Duran, L. (2005). Intervention with linguistically diverse preschool

- children: A focus on developing home language.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16, 83-102.
- Law, J., Garrett, Z., & Nye, C. (2004). The efficacy of treatment for children with developmental speech and language delay/disorder: A meta-analysi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7, 924-943.
- Leonard, L. B. (1975). Relational meaning and the facilitation of slow-learning children's language.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80, 180-185.
- Lonigan, C. J., & Whitehurst, G. J. (1998). Relative efficacy of parent and teacher involvement in a shared-reading intervention for preschool children from low-income background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3(2), 263-290.
- Mahoney, G., & Powell, A. (1988). Modifying parent-child interaction: Enhancing the development of handicapped childre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2, 82-96.
- Manolson, A., Ward, B., & Dodington, N. (1995). *You make the difference-in helping your children*. Toronto: A Hanen Centre Publication.
- Owens, R. E. (1999). *Language disorders: A functional approach to assessment and intervention*. Needham Heights, MA: Allyn and Bacon.
- Senechal, M., & Cornell, E. H. (1995). Vocabulary acquisition through shared reading experiences. *Reading Research Quarterly*, 28(4), 361-374.
- Soodak, L. C., & Erwin, E. J. (2000). Valued member or tolerated participant: Parents' experiences in inclusive early childhood settings.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Severe Handicaps*, 25(1), 29-41.
- Southwood, F., & Russell, A. F. (2004). Comparison of conversation, freeplay and story generation as methods of language sample elicitation.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7, 366-376.
- Valdez-Menchaca, M. C., & Whitehurst, G. J. (1992). Accelerating language development through picture book reading: A systematic extension to Mexican day care. *Developmental Psychology*, 28, 1106-1114.
- Warren, S., & Kaiser, A. (1986). Incidental language teaching: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51, 291-299.
- Whitehurst, G. J., Falco, F. I., Lonigan, C. J., Fischel, J. E., Debaryshe, B. D., Valdez-Menchaca, M. C., & Caufield, M. (1998). Accelerating language development through picture book reading. *Development Psychology*, 24(4), 552-559.
- Wren, C. T. (1985). Collecting language samples from children with syntax problems.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16, 83-102.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박사학위논문(2011)의 일부를 요약한 것임.

<부록 - 1> 어머니 언어행동의 분석기준

언어행동유형	하위범주	조작적 정의	
적절한 언어 행동	질문 하기	발화유도 (단서)	목표나 말을 끌어내기 위해 단서(첫음절 말해주기)를 주거나, 문장의 앞부분을 말해주고 끝부분을 완성하도록 하는 질문 예) M: 무슨 색깔이지? C: 음... M: 파...? C: 파란색 M: 엄마는 커피마시고, 동휘는...? C: 우유마셔
		개방형	'왜', '어떻게', '무슨 일' 등 이유/목적, 방법 및 사건/상황에 대해 물어보기(단, 서술어 없는 '왜?' 질문은 단순질문으로 처리) 예) 무슨 일이야?, 왜 울고 있지?, 사고 나서 어떻게 해야지?
		행동/상태	아동/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사물 상태에 대해 물어보기 예) 누나가 뭐하고 있어?/ 이 빌딩이 어때?/ 무슨 일이야?
		생각확인	객관적 사실이나 진리와 무관하게 아동 자신의 주관적 의견/감정에 대해 질문하기 예) 엄마가 장난감 안 사준다고 하면 OO는 어떻게 할 거야?
		제안	아동에게 다른 활동의 개시에 대해 의견을 물어보기 예) 아빠가 뭐하는지 볼까?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게 어때?
	반응 하기	칭찬/격려	아동의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에 대해 칭찬 또는 격려하기 예) 잘했어!/ 멋지게 잘 만들었어요./OK, 아주 좋아!
		대답/동의	아동의 질문에 대답하거나 언어적 표현에 대해 동의 표시하기 예) C: 빨간색 먼저? M: 그렇지, 맞아. C: 이걸 KTX 기차야 M: 어~ 그렇구나!
		반복/확인	아동의 말을 따라하여 아동의 의사가 전달되었음(수용)을 알려주거나 아동의 말을 확인해보기 예) M: 와, 배부른데. C: 그만 먹어. M: 그만 먹어요?
		수정	아동의 틀린 언어적 표현을 바르게 고쳐주기(발음수정 포함) 예) C: 동물원 M: 그래, 동물원 C: 이거 캔디 M: 캔디? 아니 그거 체리야
		명료화	아동의 불분명한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대신 명확한 표현으로 반응해주기 예) C: 동물원XXXX M: 동물원 뭐라고?
		확장/확대	선행된 아동의 언어적 표현에 1,2 낱말을 첨가하여, 의미내용이나 정보를 더하거나, 바른 문법적인 표현 형태로 바꿔 말하기 예) M: 뭐가 없어요? C: 우산 M: 아, 우산이 없어요 C: 아이킴이 흘렸어. M: 아이스크림이 녹아서 흘렸어요.
		언급	아동이 하고 있는 행동이나 하고 싶어 하는 말을 표현해주기 예) 엄마: "하나 둘 계단으로 올라가요"(아동이 인형을 계단에 올리는 것을 보며)
	설명 하기	상황 (사건/상태)	제시된 화면 속의 사건/상황/배경에 대해 묘사하기 예) 엄마: "친구네 가족이 동물원에 갔어요."
		경험연결	제시된 화면에서 보여 지는 사건/상황을 아동의 현재 입장이나 과거의 경험과 연관 지어 말하기 예) 엄마: "우리도 지난 일요일에 에버랜드 갔었지?"
		추론/예측	보이지 않는 사건 동기, 원인, 관련성을 추론/예측하여 말하기 예) 엄마: "이빨 아프나봐 울고 있어." "이 아저씨가 운전을 너무 빨리해서 여기 쿵 박았나보다."
부적절한 언어행동	지시/주장	아동의 의견/유도를 따르기보다 지시나 어머니 생각을 주장하기	
	방해/무시	아동의 반응을 기다리기보다 어머니가 먼저 말을 해주거나 아동의 말을 중간에 가로채거나, 아동이 한 말에 반응하지 않기	
	부정적 반응	아동의 말에 대해 비난하기, 놀리기, 빈정거리기 예) "안돼"/ "뭐야~"/ "틀렸어"/ "웃기시네"	

* Whitehurst et al. (1998), Senechal et al. (1995), 김금주(2000)에 근거하여, 연구자가 수정 · 보완함.

ABSTRACT

Effects of a Parent Training Program Using CAI on Language Behaviors of Mothers and the Expressive Language of Thei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Young-Ran Kim^{a,b} · Young Tae Kim^{a,§}

^a Department of Communication Disorder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b Kim's Speech-Language Clinic for Children, Seoul, Korea

Background & Objectives: Several researchers on multiculturalism in Korea have suggested the risk of language delay and the necessity for early language intervention.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 parent training program using CAI on mothers' language behaviors as well as their children's expressive language. **Methods:** Ten pairs of mothers and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participated in the present study. The children, aged 3 to 4 years, showed delayed vocabulary usage. Using CAI, mothers were trained on the use of facilitative strategies. The researcher provided modeling, coaching and feedback to mothers and guided them in the education of their children. A 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 was employed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parent training program. The Mann-Whitney U-test was utilized to measure pre-post differences in frequency of mothers' language behaviors, degree of precision in children's vocabulary expressions, number of different words (NDW), and mean length of utterance (MLU-w). **Result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mothers of the intervention group who received parent training showed significant increases in frequency of proper language behaviors and use of questions inducing utterance. In addition, their frequencies of improper language behaviors and use of directions/arguments significantly decreased. The training effects were generalized to the non-training context. Also,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ose children of the intervention group displayed significant improvements in correctness of expressive vocabulary, MLU-w, and NDW. **Discussion & Conclusions:**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implicate that even mother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could be effective language facilitators if they are trained in a systematic and intensive manner.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11;16:127-142)

Key Words: CAI (Computer-Assisted Instruction), parent training, multicultural family, mother's language behaviors, expressive language ability

[§] Correspondence to

Prof. Young Tae Kim, PhD,
Department of Communication
Disorders
Ewha Womans University,
11-1, Daehyn-dong,
Seodaemun-gu, Seoul, Korea
e-mail: youngtae@ewha.ac.kr
tel: + 82 2 3277 2410

REFERENCES

- Alpert, C. L., & Kaiser, A. P. (1992). Training parents as milieu language teachers.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16*(1), 31-52.
- Chung, Y. J., Kim, Y. T., Sim, H. S., Nam, K. C., & Kwon, M. S. (2003). Treatment efficacy: The computer as a treatment supplement for improving word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in aphasic adult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8*(3), 112-33.
- Dale, P. S., & Crain-Thoreson, C. (1996). Parent-child book reading as an intervention technique for young children with language delays.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6*(2), 213-236.
- Evans, J. L., & Craig, H. K. (1992). Language sampling collection and analysis: Interview compared to freeplay assessment context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5*, 343-353.
- Girolametto, L., & Tannock, R. (1994). Correlates of directiveness in the interactions of fathers and mother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7*, 1178-1191.
- Harn, W. E. (1986). Facilitating acquisition of subject-verb utterances in children: Actions, animation, and pictures.

■ Received, April 20, 2011 ■ Final revision received, May 20, 2011 ■ Accepted, May 29, 2011.

© 2011 The Korean Academy of Speech-Language Pathology and Audiology <http://www.kasa1986.or.kr>

- Journal for Computer Users in Speech and Hearing*, 2(2), 95-101.
- Hemmeter, M. L., & Kaiser, A. P. (1994). Enhanced milieu teaching: Effects of parent-implemented language intervention.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18, 269-289.
- Hoff, E., & Naigles, L. (2002). How children use input to acquire a lexicon. *Child Development*, 73, 418-433.
- Hong, G. H. (2009). Analyses of mother-related variables in mother-child interaction for predicting expressive vocabulary development in children.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Disorders*, 18(3), 35-49.
- Hwang, S. S. (2010). Early expressive vocabulary development and gender difference of children from culturally diverse family environment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Disorders*, 19(1), 193-209.
- Hwang, S. S., & Jeong, O. R. (2008). Languag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from culturally diverse family environment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13(2), 174-192.
- Jeong, E. H. (2004). A study on the language development and environment of children from internationally married couple living in and agricultural village.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Disorders*, 13(3), 33-52.
- Kaiser, A. P., Hancock, T. B., & Hester, P. P. (1998). Parents as co-interventionists: Research on applications of naturalistic language teaching procedures. *Infants and Young Children*, 10(4), 1-11.
- Kim, H. S. (2009). A new light on models SLP's role in a multicultural Korean society.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Disorders*, 18(4), 185-209.
- Kim, K. J. (2000). *The toddler-mother interaction types and toddler language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uksung Womens University, Seoul.
- Kim, M. H., & Shin, H. E. (2008). Exploring variables of Korean education for preschooler with multicultural family background.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9(2), 155-176.
- Kim, S. S., & Lee S. K. (2008). The comparison of conversation, freeplay, and story as methods of spontaneous language sample elicitation.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13(4), 44-62.
- Kim, Y. T., Hong, K. H., Kim, K. H., Chang, H. S., & Lee, J. Y. (2009). *Receptive-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Seoul: Seoul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 Kim, Y. T., Kim, Y. R., & Park, S. H. (2005). The effect of Animation of CAI on the stimulus generalization to line drawing and the MLU.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Disorders*, 14(4), 81-96.
- Kim, Y. T., Park, S. H., & Kim, Y. R. (2005). The effect of CAI on the verb expression and the number of complex sentence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10(2), 61-79.
- Kohnert, K., Yim, D., Nett, K., Kan, P. F., & Duran, L. (2005). Intervention with linguistically diverse preschool children: A focus on developing home language.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16, 83-102.
- Kwon, S. J. (2006).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in generative naming for children of multi-culture family and children of ordinary fami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 Law, J., Garrett, Z., & Nye, C. (2004). The efficacy of treatment for children with developmental speech and language delay/disorder: A meta-analysi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7, 924-943.
- Lee, J. Y., & Kwak, K. J. (2008). The effect of the socioeconomic status (SES) and home environment on the language development in early childhood.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1(3), 151-165.
- Lee, K. J. (2008). *The effects of small group parent education program with speech therapy for the interaction behavior between the mothers and their you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ed and the abilities of langua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ee, S. J., Shin, J. C., Kim, H. H., & Kim, W. S. (2008). A study on expressive vocabulary ability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Based on K-BNT-C.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Disorders*, 17(3), 95-110.
- Lee, S. H. (2003). *Child Special Education*. Seoul: Hakjisa
- Leonard, L. B. (1975). Relational meaning and the facilitation of slow-learning children's language.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80, 180-185.
- Lonigan, C. J., & Whitehurst, G. J. (1998). Relative efficacy of parent and teacher involvement in a shared-reading intervention for preschool children from low-income background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3(2), 263-290.
- Mahoney, G., & Powell, A. (1988). Modifying parent-child interaction: Enhancing the development of handicapped childre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2, 82-96.
- Manolson, A., Ward, B., & Dodington, N. (1995). *You make the difference-in helping your children*. Toronto: A Hanen Centre Publication.
- Oh, S. J., Kim Y. T., & Kim, Y. R. (2009). Preliminary study on language characteristics and related family factors in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y. *Special Education Research*, 8(1), 137-161
- Oh, Y. L. (2002). *Treatment efficacy: The computer as a treatment supplement for improving sentence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in nonfluent aphasic adults in collaboration with fami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Owens, R. E. (1999). *Language disorders: A functional approach to assessment and intervention*. Needham Heights, MA: Allyn and Bacon.
- Pae, S., Kwak, K. J., Jung, K. H., & Kim H. J. (2009). Supporting the language development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 survey of mothers and developmental supporter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Disorders*, 18(4), 165-184.
- Pae, S., Lim, S. S., Lee, J. H., & Chang, H. S. (2004). *Test of*

- Korean Sentence Comprehension*. Seoul: Seoul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 Park, H. W., Kwak, K. J., & Park, K. B. (1996). *Korean-Wechsler Preschool and Primary Scale of Intelligence (K-WPPSI)*. Seoul: Special Education Co.
- Park, J. Y. (2007). *A study on language development characteristics of bilingual environment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Gyeongbuk.
- Park, M. D. (2009). *Language development of Korean preschooler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zarene University, Cheonan.
- Park, S. H. (2006). The language ability of multicultural children. *Proceedings of the Korean Speech-Language and Hearing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Daegu University, Daegu.
- Park, S. H. (2007). *The effects of the speech support program for teachers in the inclusive day care cent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Ryu, J. H. (2009). *The comprehension of WH-questions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Seoul.
- Senechal, M., & Cornell, E. H. (1995). Vocabulary acquisition through shared reading experiences. *Reading Research Quarterly*, 28(4), 361-374.
- Soodak, L. C., & Erwin, E. J. (2000). Valued member or tolerated participant: Parents' experiences in inclusive early childhood settings.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Severe Handicaps*, 25(1), 29-41.
- Southwood, F., & Russell, A. F. (2004). Comparison of conversation, freeplay and story generation as methods of language sample elicitation.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7, 366-376.
- Valdez-Menchaca, M. C., & Whitehurst, G. J. (1992). Accelerating language development through picture book reading: A systematic extension to Mexican day care. *Developmental Psychology*, 28, 1106-1114.
- Warren, S., & Kaiser, A. (1986). Incidental language teaching: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51, 291-299.
- Whitehurst, G. J., Falco, F. I., Lonigan, C. J., Fischel, J. E., Debaryshe, B. D., Valdez-Menchaca, M. C., & Caufield, M. (1998). Accelerating language development through picture book reading. *Development Psychology*, 24(4), 552-559.
- Woo, H. K., Juong, H. S., Choi, N. Y., Yi, S. H., & Lee, G. Y. (2009). Mothers' Korean language ability and preschoolers' language development in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0(3), 23-36.
- Wren, C. T. (1985). Collecting language samples from children with syntax problems.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16, 83-102.
- Yoo, S. A. (2009). *A study on the language development of 4, 5, and 6-year-old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 This paper was summarized from a part from the doctoral dissertation of the first author (2011).